

삼성·SK, 中 CXMT 추격 거세진다… 범용 D램 경쟁 격화

CXMT 5세대 D램 양산·신제품 공개
2분기 점유율 9.5%로 빠르게 상승
中 내수 기반 생산 확대·추격 강화

삼성, HBM 집중·범용 외주 확대
SK하이닉스, 1c D램 전환 가속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5세대 D램 공정 양산에 돌입하며 범용 D램 시장에서 선두 추격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대역 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제품에 집중하는 가운데 범용 D램 시장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CXMT는 지난 20일 중국 허페이에서 열린 '2026 세계제조업대회'에서 5세대 D램 기술 플랫폼의 양산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정을 적용한 24기가비트(Gb) LPDDR5X 신제품 2종도 공개했다.

CXMT는 쿼드러플 패턴링(QTP) 기술을 적용해 메모리 어레이 핵심 구조 간 간격을 11.95나노미터(nm)까지 줄였다. 웨이퍼 한 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다이 수도 기존 4세대보다 50% 이상 늘렸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급 6세대 D램 '1c LPDDR6'.

/SK하이닉스

CXMT가 범용 D램 시장에서 생산능력과 제품군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는 HBM을 비롯한 고부가 메모리 후공정에 자체 생산 자원을 집중하는 한편 DDR5 모듈 조립과 테스트 등 범용 제품의 증산 물량에는 외주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온양 사업장의 후공정 생산 라인을 HBM과 첨단 패키징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기존 DDR5 관련 장비 일부도

협력사의 국내·필리핀 생산거점으로 이관하고 있다.

이는 한정된 후공정 생산능력을 HBM 등 고부가 제품에 우선 배치하면서 범용 D램 수요에도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HBM은 첨단 패키징 공정이 필요한 반면 DDR5 모듈 조립과 테스트는 상대적

으로 외주 활용이 용이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부터 협력사들에 DDR5 모듈과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생산라인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10나노급 6세대(1c) D램으로 제품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1c 공정을 적용한 16Gb LPDDR6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 고객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국 우시에는 주요 D램 생산거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SK그룹 내 '중국통'으로 꼽히는 서진우 부회장이 SK하이닉스로 자리를 옮겼다. 중국 우시에서 주요 D램 생산거점을 운영하는 만큼 현지 생산과 사업 전략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CXMT의 생산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조사기관 테크인사이드는 CXMT의 글로벌 D램 웨이퍼 생산 비중이 현재 약 13%에서 향후 2~3년 내 17~18%, 2031년에는 20% 안팎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매출 기준 CXMT의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은 9.5%로 전분기 7.6%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CXMT는 지난 7일 차세대 모바일 D램인 LPDDR6 양산도 발표했다. 다만 공정 기술에서는 국내 업체들과 격차가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0나노급 6세대(1c) D램을 기반으로 제품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CXMT의 LPDDR6에는 15~16나노급 공정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CXMT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 등 내수 고객사를 기반으로 신제품을 빠르게 양산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며 "아직 국내 업체들과 공정 기술 격차가 있는 만큼 범용 D램 생산능력과 미세공정 경쟁력을 얼마나 빠르게 끌어올리느냐가 향후 경쟁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삼성전자 동행노조 선거 돌입 노동부 진정까지 번진 내홍

4개 후보조 등록·28일 개표
선관위 구성·규정 놓고 갈등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완제품) 부문 중심 노동조합인 '동행노조'가 차기 위원장 선거에 돌입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선거 규정을 놓고 내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일부 노조 관계자들이 투표 중단을 요구하면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동행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차기 위원장과 수석 부위원장을 뽑는 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선거에는 4개 후보조가 등록했으며 마지막 날인 28일 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후보 등록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졌다. 앞서 동행노조의 기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현 집행부 일부 인사가 조합비를 제대로 내지 않았거나 조합원으로 활동한 기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출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새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본격화됐다.

선거 절차를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동행노조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어 선거 관리위원회 구성안과 선거 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두 안건 모두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집행부가 예정대로 선거를 추진하자 일부 운영위원과 조합원 대표들은 지난 17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선거 절차가 노조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고 투표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들은 위원장 권한대행의 노조 운영 방식도 문제 삼았다. 운영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는 등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며 노동부에 관련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동행노조는 지난 18일 전국 지부장의 업무를 중지하고 사무국장과 일부 조합원 대표에게 해임·제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일부는 앞서 노동부에 선거 절차의 문제를 제기한 인사들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정부, 유류세 인하 내달까지 연장

>> 1면 '6000원 시금치...'서 계속

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4주 연장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휘발유 15%, 경유·LPG 25%)를 11월 말까지 연장했다. 또한 추석 연휴 나흘(24~27일) 동안 전국 226개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을 두고 우려의 시선도 존

재한다. 공공재정을 투입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는 방식은 단기적인 체감 물가를 낮출 수는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결국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고, 가격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환·금융 시장에서는 고유가, 고물가에 더해 고환율, 고금리까지 겹치는 '4고(高)' 현상이 심화되면서 소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체육은 하나의 과목이 아닌
열정과 인성을 배우는 가장 좋은 교육이기에

교보생명은 꿈나무체육대회를 통해
꿈꾸는 모든 아이들이 만들 더 큰 내일을 응원합니다

교보생명
꿈나무체육대회
Since 1985

교보생명꿈나무체육대회는 지체장애를 가진 어린이 교육을 위해
1985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유소년 전국 종합체육대회입니다

KYOBO 교보생명